

현실의 균형, 미래의 조화 그리고 민주적 이상향: 영화를 통해보는 현실의 가능성과 미래비전†

박의경*

<국문요약>

이 글은 다양한 현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빠져나가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현실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역사의 뒀안길에 버려져 있던 편린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 이 글은 주목한다.

주관적 존재인 인간이 객관화시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서 영화의 상징체계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영화가 인간사회에 던지는 사회적 동력의 근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사회문제의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미래사회를 조명해볼 것이다.

다양한 요구가 그대로 가면 혼란이며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2차원적 사고를 벗어나, 다수의 요청과 바람이 참여폭발이라는 부정적 상황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일상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상적 멀티플렉스(multiplex)와 이를 통해 도달하게 될 민주적 이상향(democratopia)의 가능성을 이 글에서는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균형, 조화, 민주적 이상향, 미래, 영화

* 박의경 (pek2000@jnu.ac.kr)

학위취득대학: Rutgers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정치외교학 박사

현직: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2016-2656)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논문접수일: 2017년 10월 5일, 논문수정일: 2017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1월 6일

Balance in Reality, Harmony in the Future and Democratopia: Future Possibilities and Visions through Cinema

Park, Eui-kyung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human beings to look back at things gone missing as various realities are gathered together. It draws on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who try to change society by applying and experimenting with the model of Athenian direct democracy and by raising interest in the well-being that can be left behind by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reality. Focusing on the symbolic system of cinema as one of the important devices reaching human subjectivity, I will examine the source of social power that movies can bring to human society, which can use them to diagnose social problems and take measures against them. In this way I will try to illuminate future society. It is confusing if various demands remain intact and unfulfilled. It is an "ideological multiplex" in which many requests and wants cannot be carried out in the negative situation of participation explosion, but can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daily life. Finally I will show the possibility of 'democratopia' than can be reached through it.

[Key words] *balance, harmony, democratopia, future, movies*

I. 서: 다양한 현실과 하나된 미래

카(E.H. Carr)의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그 후손들에 의한 기록으로 과거에서 보자면 미래의 기록이고, 현재의 시각으로 보자면 과거에 대한 추론이다. 과거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근거인 과거가 하나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하나가 아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가 아닌 사회를 하나로 상정하고, 하나 됨에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대만의 학자 남회근(南懷瑾)의 한시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라.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습기를 바라고,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네...” 세상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인간의 한계로 인해 한 순간에는 한 가지 결정만 내릴 수 있다. 누에에 좋은 결정이 나오면 보리는 기다려야 하고, 농부에 좋은 정책이 결정되면 나그네는 잠시 쉬어가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요구는 다양하지만, 정책이나 결정은 다양하게 펼쳐지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의 기본적 정치체제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요구의 분출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모아내고,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인간 나름대로의 지혜가 집적된 이념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델로

운위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 모두가 구성원으로 정치적 의제선정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다양한 현실의 분출장소는 민회였고, 의견이 모아져 집행되는 곳은 민회 구성원 중에서 추천으로 구성된 평의회였으며, 정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민회 구성원 중에서 추천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맡았다. 여러 가지 건설적 정책이 아테네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도 수차례 이루어진다. 아테네 시민들의 이러한 역동성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었지만,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지혜 있는 자들을 현장의 역사에서 퇴출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역사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가며 미래로 이어져, 2000여년이 지난 18세기에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민주주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18세기의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처럼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 규모, 인구 규모, 시민권 확대운동에 따른 시민의 증가, 왕권신수설에서 국민주권설로 이양된 직후 발생하는 참여의 폭 발현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근대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표방하는 간접민주주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요구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정책선정 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부가 선거를 통해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 활동하게 된 것이 바로 21세기 현재까지의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요구는 다양하지만, 한 번에 정반대의 두 가지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세상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 현실의 길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가까운 미래의 길은 정치의 과정을 통해 하나로 모아지면서, 충족되지 못한 많은 요구들이 역사의 뒤편에 남겨지고, 거기에도 허덕이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다양한 현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빠져나가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현실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역사의 뒤편에 버려져 있던 편린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 이 글은 주목한다.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로만 달려왔던 현대의 그늘에 존재하는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의제로서 현대사회의 공식적 채널에 다시 상징하는 작업은 불완전한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원래의 이상과 목표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요구가 그대로 가면 혼란이며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2차원적 사고를 벗어나, 다수의 요청과 바람이 참여폭발이라는 부정적 상황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일상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상적 멀티플렉스(multiplex)와 이를 통해 도달하게 될 민주적 이상향(democratopia)의 가능성을 이 글에서는 살펴볼 것이다.

II. 상징을 통한 정치현실의 지속과 변화

1. 상징과 현실의 문제제기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다. 영화는 또한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 인간은 현실에 열광하기도 하고, 현실을 혐오하기도 한다. 열광하면서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혐오하면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 현대의 인간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보내는 2시간여 동안 영화는 인간의 감정과 뇌수를 장악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영화는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소외되어가는 인간의 모습부터, 무언가 희망을 기대하고 욕망추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삶을 아름답게 또는 추하게 묘사하면서 직접 대면할 수 없는 ‘나’를 역설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대중매체이다. 영화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상은 허구와 상징으로 가득차 있는 매체로서 우리는 여기서 정치를 발견한다.”(박의경 2011c, 158)

영화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단독자의 길을 가는 인간의 본질을 그려내기도 하고,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도 한다. 간혹 언론에 회자되는 고독사, 이미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왕따’의 문제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라는 거대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지배/피지배의 관계 속에 말려들어 갑/을의 구도에서 쳇바퀴 돌 듯 하는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의 부정의와 부당성에 분노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림없이나마 그려보기도 한다.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든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시대적 금언의 적실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믿었던 계층이동 사다리의 부재로 드러나면서, 여기서 뛰어내려야 하는 것인지, 되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현상이

영상을 통해 나에게 다가올 때 인간에게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2012년 우리사회 전역에 울림이 깊었던 <레미제라블>은 절망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절망의 길만 따라 가지만, 영화의 끝에서 관객들이 가지고 일어서는 것은 미래의 비전과 희망이라는 역설적 사실에서 이는 드러난다. 고난의 길에 자발적으로 뛰어들고,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며 헤쳐 나가는 영웅에 열광하면서 너무도 작은 '나'에 대해 열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한 그 '나'의 가능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영화의 상징체계 속에는 이상과 현실이 혼재하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기제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부여하는 숨겨진 코드 또한 존재한다.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면서, 현재의 나를 미래로 밀어내는 기능이 영화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기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여 형성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의 요체임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언급할 때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가 상징 기법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고, 이는 곧 미래를 위한 힘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중요한 에너지원은 바로 '나'의 생각이다. 나의 시각을 통해 들어온 영상이 가슴에 감동으로 전달되고, 뇌수로 이어지면서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인생관이 바뀌는 장면은 매우 어두웠지만, 그 미래는 세상을 밝게 바꾼다. 성당의 은촛대를 훔쳤던 장발장의 절도행위에 대한 신부의 반전 대응을 통해, 장발장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혐오와 원망이 사랑과 감사로 바뀌면서, 자선과 배려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것이 생각이 행동

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앞으로 언급할 여러 영화에서 보여지는 역사의 현장이다. 현실에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인간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영화의 기능이라면, 이를 통해 우리는 또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 설정된 미래와 생각의 변화

쉴 베른의 소설 <해저2만리>와 <달세계 여행>은 소설로 출간되었고, 영화화 되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소설, 영화는 그야말로 공상과학(SF(Science Fiction)) 소설이자 영화였지만, 1세기도 지나지 않아 이는 곧 현실이 되었다. 베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잠수함과 우주선은 21세기의 우리에게 이미 오래된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보아왔던 공상과학영화의 내용이나 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제작되고 있는 미래영화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능성이다. <인터스텔라>와 같은 영화를 통해 우리는 보다 먼 미래의 '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상산업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겠다.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를 설정한 영화를 현재의 내가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발생하고, 미래의 길을 따라간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2500년 전 아테네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정방식을 따르고 실행했고, 형성했다. 로크와 루소를 비롯한 18세기 근대 민주주의의 시조들은 민주주의가 어디에도 없던 시기에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그렸다. 정치사상적 차원에서의 대표적 미래 소설이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보이지 않던 시절에 나온 일종의 폭탄선언인 셈이다. 조선시대를 갓 벗어난 시절에 근대 헌법으로 민주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대착오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던 미래의 지침 - 곧 제도와 법률 - 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으로 일종의 미래형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나름대로의 지침이 필요해진다. 과거에는 그것이 개별적 교육이라는 좁은 과정을 통해 전승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보편적 교육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배우면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대중매체로서의 영화의 가능성과 동시에 그 중요성이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 영화는 대중들에게 단기간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때로는 감당하고 싶지 않는 불편한 진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박의경 2011c, 159) 것도 사실이다. 느슨하고 완만한 현재의 모습을 짧은 시간에 압축된 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이 현실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존재하는 정치의 본질과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통찰하고 궁극적인 미래비전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관적 존재인 인간이 객관화시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서 영화의 상징 체계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영화가 인간사회에 던지는 사회적 동력의 근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사회문제의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미래사회를 조명해볼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에서 변화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III장은 현실의 힘과 변화의 동력을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과 <레몬트리>를 통해 살펴본다. 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혁명적이라거나 개혁적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현실의 균형을 추구하는 민주사회 시민들의 점진적, 지속적 문제해결 방식의 가능성이 여기서 발견된다.

IV장은 현실과 미래의 삶을 동시적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안토니아스 라인>과 <쇼생크 탈출>을 살펴본다. 각 영화의 주인공 안토니아와 그 딸들, 그리고 앤디는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지만 미래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다.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 안토니아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앤디도 현실에서 미래를 쌓아나간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원하는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진 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았듯이,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미래도 꿈을 놓치지 않는 자들의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III. 현실의 힘과 변화의 동력: <12인의 성난 사람들>과 <레몬트리>

1. 압도적 현실과 한 사람의 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일개인에게 국가와 사

회의 현실은 매우 압도적이다. 거대한 탁류를 따라 흘러가는 나뭇잎과 같은 존재로, 한 인간이 거대한 운명의 방향을 바꾸거나,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렵고도 지난한 일이다. 마키아벨리가 500여 년 전 <군주론>에서 포르투나(Fortuna)를 묘사하면서 한손에 돛단배의 키를 잡고, 다른 손에 돛을 잡은 운명의 여신을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인간을 설명한 바 있다. 포르투나에 휘둘리는 인간을 묘사하면서도, 마키아벨리는 또한 거세게 다가오는 운명의 여신을 제압하는 힘으로서 비르투(Virtu)를 제시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나는 운명의 여신을 위험한 강에 비유한다. 이 강은 노하여 평야를 덮치고, 나무나 집을 파괴하고, 이쪽 땅을 저쪽으로 옮겨놓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격류 앞에는 도망가며, 어떤 방법으로든 제지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이 평온할 때 인간이 제방과 둑을 쌓아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에 강물이 불더라도 제방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방을 넘어와도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 2003, 171)

“운명은 저항을 위한 조직적 힘이 없는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고, 그 힘을 막기 위해 조성된 제방이나 둑이 없는 곳을 덮친다”(마키아벨리 2003, 171)는 마키아벨리의 말에서, 우리는 압도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예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운명의 범람은 통제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담대하게 맞서는 자들에게 현실에서 보이는 압도적 위력이 넘어설 수 없는 산은 아니라는 말이다. 마키아벨리를 따른

다면, 압도적 현실은 대담하게 맞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부터 균열을 보이고 변화의 가능성을 배태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압도적 흐름에 저항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영화로 필자는 <12인의 성난 사람들>¹⁾과 <레몬트리>²⁾를 제시한다.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모든 것이 확실한 듯이 보이는 결정의 순간에 한 사람의 합리적 의심과 이를 파헤쳐 보아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확실한 듯이 보이는 모든 것을 뒤집는다. 다수결로 많은 것이 결정되는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배심원단의 유무죄는 만장일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지니는 무게도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출신배경, 각자가 처한 당시의 상황 모두 다른 다양한 12인이 모여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과정을 그려낸다. <레몬트리>에서 여주인공 살마는 엄중한 국제정치적 대립구도와 국가의 압박 속에서 혼자만의 투쟁을 선언한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아버지가 물려준 레몬농장을 지키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접경지의 국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시작한다. 영화

- 1) 1957년 작품으로, 미국 빈민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12명이 유죄나 무죄냐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합리적 의심으로 압도적 현실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현실을 의심하는 한 사람의 힘을 조명한다.
- 2) 2008년 작품으로, 보안문제로 농장의 레몬나무를 빼앗기게 된 여성의 실화를 토대로 하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과 이스라엘의 접경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배경으로 한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수사회의 보수적 여성이 강압적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 <레몬트리>에 관한 이 글의 내용은 본인의 논문, “전쟁의 길과 평화의 나무,”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2013))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는 개인의 의지라는 사적인 결정이 공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압도적 현실의 힘에 저항하는 개인의 힘을 드러낸다.

이 모든 영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다. 의지를 가진 한 사람이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임을 이 영화들은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역사의 한 순간에서 있는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가능성의 한 축을 내가, 바로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안 될 수도 있었던 일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역사의 흐름에서,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나’ 한 사람은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다. 모든 일은 수많은 ‘나’가 움직일 때 시작된다.³⁾

민주주의의 건강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시민의 건강은 민주주의에의 참여를 통해서 단련되고 표출되게 된다. 시민의 지속적 참여는 시민과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고, 이는 또 다시 시민의 참여를 촉발시키는 제도적 선순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참여민주주의는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시민의 존재이고, 시민의 참여인바,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온다. 모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20세기 정치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다루어야 할 분야가

3) 1987년의 6.10 항쟁, 2016년의 촛불시위는 정권의 교체를 이루어냈다. 4.19와 5.18도 있었지만 참여계층과 지역의 제한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돌아본다면, 역사는 수많은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되고 앞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일상사와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되었다. (박의경 2014b, 146)

시민혁명을 통해 설정된 민주주의가 공화제와 만나면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구성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개인, 시민의 힘에 대한 몰이해의 시기도 있었으나, 20세기말 참여민주주의 논쟁을 거쳐 21세기에는 참여적 시민과 함께 심의민주주의 등이 대두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인의 의지, 참여 등 시민의 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부나 행정부의 수장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도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근대의 정치철학은 주권을 입법권으로 정의하고 입법권이야말로 통치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아무리 불충분하더라도 국민이 입법권에만 관여하고 있다면 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라는 이치가 통용되어 버린다...

입법부가 통치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원칙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길이 보인다. 입법권만이 아닌 행정권에도 국민이 공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이로써 근대정치철학이 만들어 온 정치이론의 결함을 보완할 수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로 일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고쿠분 고이치로 2016, 23-25)

2. 지원세력의 중요성

사회 자체가 이미 복수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기에, 혼자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형용모순이다.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혼자만의 힘으로 사회가 형성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변(強辯)을 넘어 궤변(詭辯)에 가깝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가는 존재이며, 사회 속에서 옳고 그름도 가리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⁴⁾

타인과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지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고립된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이거나 신인 것이다... 사람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아리스토텔레스 2011, 263; Aristoteles 1981, 5)

사회와 인간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이, 전자는 후자의 존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물고기를 움직일 때 물에 대한 지시가 별도로 없더라도 물과 같이 옮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당면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힘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압도하는 사회의 공세에 맞서는 그 한 사람의 힘이 빛을 발하고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원세력이다. 지원 세력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공동체로서, 인간은 공

4)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이거나 짐승이라고 역설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민이 되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 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말한다.

동체를 이루려는 본능적 충동을 가지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의 옳고 그름을 공동체 속에서 판단해내게 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 즉 전체의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

덕이 없으면 인간은 가장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존재며, 탐욕과 무절제함이 다른 동물보다 더 강하다. 사람은 국가의 정의를 통해 구원받는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공동체가 실현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2011, 263-254; Aristoteles 1981, 6-7)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강하게 밀려오는 현실의 파도에 맞서기로 결정한 한 사람의 외침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원세력으로서 조력자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그 조력자는 논의를 진행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사건의 모든 정황은 피의자의 유죄를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이에 동의를 표한다. 유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건에 대한 재논의 없이 진행된 표결에서 유죄 11인과 무죄 1인의 결과가 나온다. 만장일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무죄에 표를 던진 1인은 그 이유로 “유죄의 확신이 부족함”을 내세우고, 그 ‘1인의 힘’이 결과 도출의 시간을 연장시킨다. 유죄 평결은 재판의 피고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안겨줄 수 있기에 신중하자는 주장과 함께 논의가 지속된다. 여전한 다수의 반대 속에 1인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과의 협상안을 제시한다. 다시

한 번 투표하되 이번에는 무기명으로 하고, 이번에도 11대1이라면 유죄에 승복하겠다는 협상안으로, 2차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유죄 대 무죄 10대2라는 놀라운 반전을 드러낸다.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다. 2차 투표에서 무죄에 동참한 사람의 의견은 이렇다. “다수에 저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한번 도와주고 싶었다.” 매우 단순한 조력자의 이 한마디로 합리적 의심은 재조사와 의문에 대한 질문, 재질문을 통해 유죄로 확인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ed innocent)”을 현실에서 가능케 한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첫번째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기된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동력은 두 번째의 조력자에게서 발견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힘을 얻어가는 과정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정치의 현장에서 문제는 사안을 제기하는 한 사람과 그에 동조하는 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자, 동시에 역으로 그 두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힘이 없는 자는 없다. 모두가 정치의 주인이고, 민주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의 담지자인 것이다.

영화 <레몬트리>에서 아버지의 유산이자 생활의 터전으로 레몬 농장에서 일상의 삶을 일구어가던 팔레스타인 여성 살마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나본이 이웃으로 이사 오면서 불안한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국방장관 나본은 집 근처의 초소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레몬농장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다. 살마가 원했던 것은 일상의 지속이었고 그 구체적 모습은 레몬농장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살마의 일상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이사는 매우 극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사 온

이웃의 선제적, 예방적 군사조치와 행동은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국내적인 것을 국제정치적으로, 소극적 여성을 적극적 시민으로, 조용한 옹시가 명시적 행동과 참여로” 변화시킨 요인이 되었다.(박의경 2013, 468)

레몬농장의 여주인 살마는 이스라엘과의 접경에서 레몬농장을 지키기 위해 법정투쟁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이었지만, 한 변호사가 도움을 주게 되면서 이 사건은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되어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접경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건은 이스라엘의 군사법정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는다. 결과적으로 레몬 나무는 30cm 로 잘려나갔지만, 레몬 농장은 존재하게 된다.

레몬농장을 지키겠다는 살마의 의지만으로 국경의 레몬농장이 지켜질 수 있었을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마가 레몬농장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녀의 주변에서 동의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불안한 평화가 일상을 언제 위협할지 염려스러운데, 레몬농장 하나로 그 평화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살마에게 농장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나의 레몬을 이유 없이 포기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개인적 사유로 살마는 국가와 법, 제도를 상대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러한 살마의 의지에 한 변호사가 화답하고, 그 화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모두가 정치의 주인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분쟁지역의 국경에서 레몬농장이 살아남은 것은 한 사람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를 돕겠다고 선언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두 사람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들어서서 모습은 언론으로 생중계되면서 이미 현장의 주인

이 누구인지는 밝혀진다.

‘레몬농장은 유지하되, 보안상 이유를 인정하여 레몬나무의 높이를 30센티미터로 제한한다’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은 거대한 국가 구조, 위협적 국제정치 상황이라는 압도적 현실에 맞서기로 결정한 살마와 변호사의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국내적인 것이 바로 국제적인 것이다. 나의 행동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박의경 2011c, 166) 바로 이것이 <레몬트리>에서 한 사람과 그 지원세력으로서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의 현장이다.

3. 현실의 변화를 위한 기제 : 합리적 의심과 일상의 추구

역사와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사소한 불만과 이의제기부터 혁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지만, 그 근저에서 사안을 움직이는 동력은 몇 가지로 집약되는 바, 합리적 의심을 통한 사고(思考)의 전개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영위하겠다는 일상의 추구를 통한 의견의 개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사람은 모든 것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상황에서 보다 확실한 유죄의 증거를 찾아 보려고 시도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제시된 증거가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게 되는데, 제시된 모든 사안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 그 출발점이었다. 최초의 1인은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해 사안을 검증해 들어가면서 선부른 예단을 피하고자 시도하고, 합리적 의심을 가

지게 된 사람들은 차츰 논증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결정으로 결과를 도출해낸다.

‘합리적 의심’의 사상적 토대에서 우리는 근대적 철학의 단초를 제공한 데카르트를 본다.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방법적 회의는 내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부터 의심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인과론적 사고의 기틀을 형성하고, 공동체 중심의 고대와 중세 사고방식에서 개인 중심의 근대적 사고체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이다.⁵⁾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 다시 말해서, 생각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므로 존재에 앞선다는 - 사유의 전 존재성과 동시에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물질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의경 2014a, 76) 여기서 생각은 곧 기존의 것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이어져, 새로운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귀결된다. 즉, 합리적 의심은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사회 변화와 발전의 기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가 자신의 존재까지 의심하면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합리적 의심의 끝에는 존재하는 자의 존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남

5) 데카르트의 말은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물체는 본성상 언제나 나눌 수 있는데 비해, 정신은 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실제로 내가 정신을, 즉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분할하거나 구분해낼 수 없으며, 오히려 나를 완전히 하나이자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박의경 2014a, 76)에서 재인용. 데카르트 1997, 117-8)

을 알 수 있다. 즉,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한 사람이 존재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는 데에는 그 일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랴든가, 일상의 정치학 등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레몬트리>에서 살마로 하여금 어려운 싸움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일상의 추구’에서 발견된다. 살마를 돕기로 결정한 변호사에게도 일상의 추구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여, 자신의 변호사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첩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살마가 원하는 아주 사소하고 사적이며, 일상적 욕망의 추구가 국가적, 국제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적막감이 살마의 절실함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감정이입 되면서 변호사는 이 일에 집중하게 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살마의 절실함의 원인은 내 일상이 깨어지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방이 쳐놓은 장막 때문에 레몬나무를 돌보지 못해 레몬이 떨어지는 소리로부터 살마의 절실함은 그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부인 미라에게까지 전달된다.

물 한 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듯이, 일상의 지속성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위대함을 성취해낼 수 있음이 살마의 굳은 결심과 결정에서 드러나고, 그러한 단호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면서 법과 제도의 도움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여인 살마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일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면의 욕구가 있을 뿐이며, 여기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힘이 발견된다. <레몬트리>의 살마를 보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결정을 대리인에게 맡기면서 쇠퇴하기 시작하고, 시민이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설 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데리다가 말하는 ‘다가올 민주주의(démocratie à venir)⁶⁾란 바로 이러한 데카르트적 의심을 통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운영해나가는 현재진행형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값을 하는 민주주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다가올 것으로 남아있다.” (Derrida 1990, 53) 미래를 위한 현재진행형 민주주의에 대한 언명이자 주문인 것이다. 민주주의에는 완성이 없기에,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처럼 이제 시작이며, 또 먼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다.⁷⁾

IV. 현실에 들어선 미래사회: <안토니아스 라인>과 <쇼생크 탈출>

6) 고쿠분 고이치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항상 실현 직전에 있고,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항상 다가올 것으로 남으니까 실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데리다는 말한다.”(고쿠분 고이치로 2016. 200-203)

7)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달성한 민주주의도 시작에 불과했고, 2016년 촛불시위의 현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서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음이 잘 드러난다. 민주주의에는 완성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길 위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감시와 개선 등이 그것이다.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집이 쇠락하여 가듯이, 자유와 민주주의도 그 주인인 시민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20세기 전체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1. 무거운 현실 속의 유쾌한 상상

테리다의 말처럼 민주주의가 여전히 다가올 그 무언가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이나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몸은 현실을 살아가되 정신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섭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힘은 상상력이고, 그것은 언제나 꿈꾸는 자의 것으로 남는다.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은 어둡고 답답하면서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미래지향적 인간의 모습을 담는다. 현실의 경직적 원칙적용과 원리주의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안토니아와 그 딸, 또 그 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미래의 자유와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미리 엿보게 한다. 현실의 압도적 힘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 시민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안토니아 농장 마당의 식탁을 통해 잘 드러난다.

영화는 안토니아의 증손녀 사라의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안토니아의 농장 마당에 진설된 식탁이 각 시기와 장면의 전환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이유로 모이게 되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다.

안토니아의 농장 마당에서 벌어진 다섯 차례의 잔치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일단 참여자를 보자. 사회에 있는 모든 부문의 소수자가 거기에 모두 모여 행복하게 담소를

나눈다. 기존 사회에서 그들에게 주는 역압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특기할 만한 것은 잔치 장소 뒤로 보이는 농장의 문이다. 대체로 이 농장의 문은 열려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테레즈를 낳는데 도움을 주었던 레타도, 신부복을 벗어버린 신부님도 모든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열린 문을 통해 자유의지로 걸어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진입장벽도, 퇴출요건도 없다. 다만 개인의 자유의지만 있을 뿐... (박의경, 미네르바 정치학회편 2008, 311)

안토니아 농장 마당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였고, 식탁은 담론이 오가는 아크로폴리스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의 역할을 안토니아는 자신의 농장 마당에서 별다른 규칙이나 억압 장치 없이 수월하게도 형성하고 유지해 간다.

이들 모두가 잔치를 통해서 가족으로 화하는데, 결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혼한 커플도 있고, 하지 않는 관계도 있다. 이성애가 다수인 상황에서 동성애 커플도 아무 문제없이 일상을 영위한다. 개별 인간의 취향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토니아의 농장 마당의 잔치상에서 드러난다. 진입도 자유롭고, 의견 개진도 자유롭고, 판단과 행동의 자유도 물론 확보되어 있으며, 모두가 행복해 한다... (박의경, 미네르바정치학회편 2008, 311)

정치의 목적이 행복에 있고, 그 행복이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너와 나 모두가 자유로운 안토니아의 농장 마당은 이상사회의 모델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절부터 현대의 모든 정치 사상가들이 바라마지 않던 바로 그 유토피아가 안토니아의 농장에서 벌어진다.

중심의 정치학에서 주변부가 어떻게 정치

8) 1995년 네덜란드 여성감독 마를렌 고라스 작품으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다. 안토니아스 라인이란 주인공 여성 안토니아의 계보를 의미한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안토니아를 중심으로 4대에 걸친 가계를 그리면서 여성들의 삶과 미래형 가족관계를 제시한다. <안토니아스 라인> 관련 내용은 미네르바정치학회편, 『영화 @정치』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 수록된 본인의 글 “안토니아스 라인 - 여성들의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소수자의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영화의 곳곳에서 번득이면서 압도적 현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시원하고 유쾌한 상상으로 다가 선다. 모두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일탈을 정상으로 포함시키거나 비정상과 정상을 넘나드는 대화의 기술이 매우 탁월하게 드러나면서 현실에서 미래 사회를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이다.

손녀 테레즈가 천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등 극단적 상황에 대처하는 가모장(家母長) 안토니아의 침착한 대응은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민주주의 지도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안토니아의 유토피아적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에 제1의 기제는 농장의 식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지만, 농장의 외곽에서 농장을 바라보는 이웃집 농부 바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바스의 청혼에 ‘나는 아들이 필요 없다’는 안토니아의 답변은 그들의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이어진다. 바스가 안토니아의 일탈적 태도를 어떻게 포용하는지, 안토니아가 전형적 가부장 사회 농부 바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통해서, 유토피아적 공동체의 존재와 지속 여부는 현실에 살아가는 이들의 반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두운 현실을 뚫고 나오는 유쾌한 상상은 안토니아의 농장 마당의 식탁을 단순한 식탁이 아닌 미래형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형상화하면서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어느 누구도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분방한 담소로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외치는 현대사회가 배워야 할 요소가 드러난다. 모든 구성원

의 자유로운 진출입, 자유로운 대화의 이행 등을 통해서 볼 때 <안토니아스 라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모든 이의 자유이고, 그 자유가 모든 이의 수중에 있어야 하고, 순간순간 일상에서 향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의 향유하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적은 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기도 한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귀족과 귀족이 아닌 자들의 목적을 검토해보면, 전자에게는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갈망이 있고, 후자에게는 단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서 귀족들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기 때문에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훨씬 잘 지킬 것이다.” (마키아벨리 2006, 89)

마키아벨리는 자유가 엘리트와 같은 소수보다 다수의 수중에 있을 때 보다 안전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유가 모두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이란 없던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이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일까? <안토니아스 라인>은 이에 대해 ‘바로 이렇게’ 라고 하듯이 안토니아의 식탁을 비춘다. 현실에 도래한 미래 사회이자, 현재진행형 민주주의가 바로 그 식탁에서 펼쳐진다.

2. 미래사회의 현실태: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

미래란 내일 이후의 시기를 의미한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내일이란 어떤 의미일까? ‘내일이 뭐야’는 아이의 질문에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이라고 답했던 어른에게 내일은 바로 오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일이 오늘이라는 말은 또한 내일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시공간 개념에서 내일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다. 존재하지 않거나 형상화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할 때 추상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내일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인간이 보는 지점은 바로 그 내일, 미래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리는 미래는 현재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그려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에게 미래는 현실이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 하면, 현실은 미래로 포장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선 현실의 인간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그 터널에 끝이 있으리라는 상상이다. 오래전 자옥한 안개로 덮인 도버해협 횡단 수영을 시도했으나 거의 마지막에 포기한 한 수영선수는 실패의 원인을 물이나 수영이 아니라 안개에서 찾았다.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목적지가 보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의 말이였다. 어두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어둠의 끝을 상상하고, 그 끝에는 어둠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⁹⁾에서 자유로운 영혼

9) 1994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억울하게 중범죄로 수감된 지식인의 탈옥과정을

의 소유자인 주인공 앤디는 넘어설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절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해 오늘의 목표를 세우고 수행해나가는 매우 단순하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시간을 보낸다. 수감자로 매우 제한적인 생활권내에서도 인간이 목표를 세우면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꿈꾸는 자의 의지와 힘을 드러낸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악몽과 같은 날이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가 느끼는 절망은 짐작이 가능하다. 흉악범들이 대부분인 교도소에 수용된 지식인의 삶이 참혹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그 교도소에서 이루어내는 성과는 현실에서 소수자들이 권력자에 대항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내는 과정과 매우 닮아있다.

영화에서 두 가지 매우 인상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그 첫 번째 것은 영화 제목과 같은 주인공의 탈출 장면이다. 근 20년의 수형생활 이후에 기회가 되자 그는 탈옥을 한다, 두 번째 인상적인 작업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존재하는 이름뿐인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탈옥의 시작은 교도소에 입소하자마자 구입한 조그만 돌도끼로 교도소의 벽을 조금씩 매일 파내기 시작한다. 뚫릴 때까지....., 20년 이후 계기가 생겨 나가자 마음먹었을 때, 벽은 뚫려있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마음먹었을 때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여 년 전의 시작이 20년 이후의 일을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 것이다.

다룬다. 꿈을 잃지 않은 자의 동력이 극적으로 그려진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있어도 자유롭고, 그는 현실에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잘 그려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서도 발견된다.

두 번째, 교도소내의 도서관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의지와 합의 파괴력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앤디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도소내의 허름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업무를 배정받고, 할 일을 생각한다.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여기서 그가 하는 일을 매우 간단하다. 주지사에게 1주일에 두 번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어 달라고 편지 쓰는 것이 전부이다. 편지 쓰는 작업은 지식인으로 교도소에 들어온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했다. 자기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으로부터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임을 드러낸다.

언젠가 나갈지 모를 그 시기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한다. 모두가 안 된다고 예단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자유도 평등도 권리도 규제되고, 공간도 제한된 교도소의 죄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시민이 못할 리 없다. <쇼생크탈출>의 주인공 앤디가 한 일은 꿈을 가졌고, 그것을 일상에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긴 것이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은 우선 꿈을 꾸는 것이다. 꿈으로 미래는 그려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일은 오늘 내가 그린 내일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 즉, 미래가 현실로 다가서고, 현실이 미래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미래의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현대 문명의 도움 위에 우리는 서 있다. 그러나 꿈이 아무리 좋아도, 꿈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꿈꾸는 자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머리로 알게 된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몸을 움직여서 참여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꿈은 그저 꿈으로 멈춘다. 꿈을 가지고 직접 세상에 나서는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현재로 부른다.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민주주의도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꿈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꿈을 꾸는 시민들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졌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이제 시민의 손에 넘겨졌다. 계속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을 지키면서 참여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의 일은 빠진 채 이 빠진 세상이 전개된다. 나로 인해 세상이 미완성이 된다.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이제 의무이다. 방법은 내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민주시민의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이 존재한다.”(박의경 2011c, 164) 미래를 꿈으로 그린 자들의 노력을 통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꿈을 꾸고 그 실행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다.

17-18세기에 민주주의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돌보고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옹호하는, 즉 민주주의를 ‘키워 나갈’(cultivating) 책임이 시민에게 맡겨졌다. (Wolfen 2008, 138; 트론토 2014, 312에서 재인용)

“시민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Rousseau 1978, 222)이라는 루소의 언명으로부터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시민이고, 시민은 만들어지는 것임이 드러난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움직

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기서 시민은 모두가 주인공이고 정치의 주인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의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V. 결: 민주적 이상향(democratopia)을 위하여

17-8세기 민주주의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사회 환경도 민주주의가 등장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 산업구조를 비롯하여 국가의 역할, 개인의 기능, 삶의 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민주주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대중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총아로 자리 잡았으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만족하지 못한 구성원의 때로는 상충하는 요구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단적 갈등 속에 휘말려 있다. 여기에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가 있다.

17세기 전제정치의 압제에 대한 해결책도 민주주의였던 것처럼, 21세기 빈부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치사상가 존 던(John Dunn)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말을 빌려 “민주주의가 일단 자리 잡고 지속되는 한 인류는 지난 천년 동안의 끔찍한 위협, 즉 잠재적으로 가용한 식량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기근과 집단 기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한다.(던 2015, 180-181)

민주주의란 다수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민주주의

를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현실에서 논의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와 결정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모두의 힘이 필요하고, 이것이 모여져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통한 자신감이다. 앞서 살펴본 영화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희망적인 모습과 가능성은 현대사회의 거대한 구조 속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합리적 의심으로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사람과 그 조력자,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서 조화롭고 균형적인 식탁을 꾸미는 안토니아의 농장 사람들, 강압적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는 쇼생크 교도소의 앤디와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레몬 농장의 살마, 이들 모두에게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행동하는 시민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영화는 현실의 정치와 나의 일상을 만나게 한다. 상징체계로서 영화가 현실정치에 주는 역동성은 한 사람의 힘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그 힘이 미래 사회의 빛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서 발견된다.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의 계기 또는 일종의 계획(아감벤 외 2017, 164)이라는 크리스틴 로스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어떤 구체적 모습을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 사람의 도발적 상상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미래사회를 형성하게 하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민주적 이상향인 데모크라토피아(democratopia)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의 개인은 시민이 되어, 국가의 안보논리에 밀리거나, 대중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의회의 논리에 민주주의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쿠분 고이치로. 김윤숙 역. 2016. 『다가올 민주주의』. 서울: 오래된 생각.
- 던 존. 황미영 역. 2015. 『민주주의의 마법에 서 깨어나라』. 서울: 레디셋고.
- 데카르트. 이현복 역. 1997. 『성찰: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서울: 문예출판사.
- 마키아벨리. 강정인 외 역. 2003. 『군주론』. 서울: 까치.
- . 2006 『로마사논고』. 파주: 한길사.
- 미네르바정치학회편. 2008. 『영화@정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밀러 제임스. 김만권 옮김. 2010.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서울: 개마고원.
- 박의경. 2008.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루소의 역설,” 『사회과학연구』 16(2): 76-103.
- . 2011a. “시민의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정치와 평론』 8: 37-64.
- . 2011b. “대중에서 시민으로: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5(5): 81-101.
- . 2011c. “영화의 상징체계를 통한 정치의 발견,” 『현대사회과학연구』 15(2): 157-173.
- . 2013. “전쟁의 길과 평화의 나무,” 『국제정치논총』 53(4): 463-492.
- . 2014a. 『여성의 정치사상』 서울: 책세상
- . 2014b. “참여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4(1): 146-190.
- 아감벤 조르조 외. 김상운 외 역. 2017.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서울: 난장.
-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역.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정치학/ 시학』. 서울: 동서문화사.
- 올리어리 케빈. 이지문 역. 2014. 『민주주의 구하기』. 파주: 글항아리.
- 잉글하트, 로널드 외. 지은주 역. 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파주: 김영사.
- 트론토 조안. 김희강 외 역. 2014. 『돌봄 민주주의』. 서울: 아포리아.
- 시드니 루멧. 1957.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 에란 리클리스. 2008. 『레몬트리 (Lemon Tree)』
- 마를렌 고리스. 1995. 『안토니아스 라인 (Antonia's Line)』
- 프랭크 다라본트. 1994. 『쇼생크 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

Non-Korean References

- Aristoteles. 1981. *The Politics of Aristotle*.
Translated by Ernest Bark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yan, Frank. 2004. *Real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rrida, Jacques. 1990. *Du droit à la
philosophie*. Paris: Galilée.
- Mill, John Stuart. 1991. *On Liberty and Other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on, Donald. 2011. *Town Meeting:
Practising Democracy in Rural New
England*.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Rousseau, Jean-Jacques. 1978. *On the
Social Contract*. Translated by Judith
Mast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 . 1979. *Emile*. Translated by Allan
Bloom. New York: Basic Books.
- Tocqueville, Alexis de. 1960. *Democracy in
America*. Edited by Phillips Bradley,
translated by Henry Reeve. New York:
Alfred A. Knopf.
- Zimmerman, Joseph. 1999. *The New England
Town Meeting*. Westport CT: Praeger.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Agamben, Giorgio et al. 2017. *Democratie, dans quel etat?* Translated by Kim Sam-gwoon et al. Seoul: Nanjang.
- Aristoteles. 2011. *Nichomachean Ethics/ Politics/Poetics*. Translated by Sohn Myung-hyun. Seoul: Dongseo Munwhasa.
- Descartes, Rene. 1997.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Translated by Lee Hyun-bok. Seoul: Munye.
- Dunn, John. 2015. *Breaking Democracy's Spell*. Translated by Whang Miyoung. Seoul: Readyssetgo Publishing.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11.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Translated by Ji Eun-joo. Seoul: Kimyongsang.
- Kokubun Koichiro. 2016. *Democracy to Come*. Translated by Kim Yoon-suk. Seoul: Old Thinking.
- Machiavelli, Niccolò. 2003. *The Prince*. Translated by Kang Jeong-in et al. Seoul: Kachi.
- . 2005. *Discourse on the Roman History*. Translated by Kang Jeong-in et al. Seoul: Hangilsa.
- Miller, James. 2010. *Democracy Is in the Streets*. Translated by Kim Man-kwon. Seoul: Gaemagowon.
- Minervan Political Society, eds. 2008. *Politics @ Movies*. University Press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O'Leary, Kevin. 2014. *Saving Democracy*. Translated by Lee Ji-moon. Seoul: Geulhangari.
- Park, Eui-kyung. 2008. "The Paradox of Rousseau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ocial Science Studies* (Sogang University) 16 (2): 76-103
- . 2011a. "Citizen's Self Government and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8: 37-64.
- . 2011b. "From the Mass into Citize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5 (5): 81-101.
- . 2011c. "Discovery of Politics through Movies as Symbolic Systems,"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15: 157-173.
- . 2013. "Road to War and the Tree for Peac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3 (4): 463-492.
- . 2014a. *Women and Political Thought*. Seoul: Bookworld.
- . 2014b.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Participatory Democracy," *Democracy and Human Rights* 14(1): 146-190.
- Tronto, Joan. 2014. *Caring Democracy*. Translated by Kim Hee-kang. Seoul: Aporia.
- Films Used with Korean subtitles:
 Gorris, Marleen, dir. and screenwriter 1995. *Antonia's Line*.
 Lumet, Sidney, dir. 1957. *12 Angry Men*. Reginald Rose, screenwriter.
 Riklis, Eran, dir. 2008. *Lemon Tree*. Suha Arrata and Eran Riklis, screenwriters.
 Darabont, Frank, dir. and screenwriter. 1994. *The Shawshank Redemption*.